

## 24시간 온라인 뉴스채널 SBS MOBILE 24 오픈!

### 온라인 전용 콘텐츠로 모바일 세대 사로잡는다

지난 2월부터 보도본부가 준비해온 24시간 온라인 뉴스채널 'SBS모바일24'가 4월 24일(수) 정식 개국했다.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모닝 와이드>와 <SBS 8뉴스> 등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들을 하루 약 6시간 30분씩 수중계 전송해왔다. SBS모바일24는 여기에 시사 라디오 프로와 <뉴스토크>,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등을 더하고, TV에서는 볼 수 없는 온라인 전용 뉴스 콘텐츠들을 추가 제작해 24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메인 방송은 유튜브의 SBS뉴스 채널에서 이뤄진다. 네이버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다. 일부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트위치(twitch/아마존 운영)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Play! 뉴스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내건 SBS모바일24는 뉴스보기를 딱딱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재미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콘텐츠는 오리지널 라이브 프로그램들이다. 국내 대표 스포츠 아나운서인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배거슨라이브 시사>(수 오후 6시)는 스포츠 스타들을 초대해 흥미로운 경기 뒷이야기를 풀어낸다. 유튜브와 트위치에 동시 방송하는 <시사>는 시험 방송에서 이미 트위치 최다 동시접속자 5천 명을 돌파했다. 국내 뉴미디어 뉴스를 대표하는 두 브랜드, 비디오머그와 스프스뉴스는 콜라보 프로그램 <비스킷-뉴스를 점령하라>(수/금 오전 11시)를 선보인다. 유튜브 구독자 49만 명(국내 언론 중 3위)을 확보하며 시사와 스포츠에 강한 비디오머그팀과 18~24세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구독자 33만 명(8위)을 보유한 스프스뉴스가 서로의 콘텐츠를 솔직하게 비판하는 토크 배틀을 벌인다. 이밖에 <SBS 8뉴스> 주말 앵커인 김범주 기자가 진행하는 <김범주의 이견머니>(금 오후 4시), 정구희 기상담당 기자와 정주희 기상캐스터, 개그맨 정재형씨가 출연하는 <비오다갸-세상의 모든 날씨>(수/금 오후 1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평일 <SBS 8뉴스>를 책임지는 김현우 앵커와 주말 앵커 김민형 아나운서는 다음 달 온라인 전용 인터뷰 프로그램 <어젠다스>(가칭), <취조>(가칭), <참 쉽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뉴미디어국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상파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다양한 뉴스 현장을 연결하는 특보·속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미디어국은 미디어기술연구소, 기술기획팀, 인프라관리팀 등의 도움을 받아 목동 본사 5층에 온라인 전용 '모바일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최근 글로벌 방송시장은 채널을 상하로 스캔(scan)하는 시대에서 상하좌우로 콘텐츠를 선택(choice)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뉴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CBS의 경우 애플TV 등 OTT(over the top) 플랫폼에 진출해 CBSN과 CBSN-뉴욕 같은 24시간 온라인 뉴스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형 뉴미디어국장은 "SBS뉴스도 장기적으로 별도의 독립 채널이자 콘텐츠로서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SBS 안에 뉴스, 예능, 드라마, 교양 등이 있듯이 SBS뉴스도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SBS모바일24는 SBS뉴스가 독립적인 OTT 뉴스 채널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녹두꽃

사랑, 하늘이 되다

## 새 금토드라마 4월 26일 첫 방송 사극 장인 정현민 작가 X 신경수 감독\_명품 사극 예고

새 금토드라마 <녹두꽃-사람, 하늘이 되다>(이하 <녹두꽃>)이 4월 26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녹두꽃>은 동학 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는다.

<정도전>을 쓴 정현민 작가와 <뿌리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를 연출한 신경수 감독이 의기투합하여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5주년이 되는 올해 뜻깊은 드라마를 내놓는다.

조정석이 전라도 고부 관아의 악명 높은 이방인 백가의 장남이자 얼자 백이강으로 분하며, 윤시윤이 백가와 본처 소생의 적자 백이현을 연기한다.

이강은 쉽게 꺾이지 않는 근성, 들불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가진 인물로, 적자인 이현은 꽃길만 걷게 하려는 백가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온갖 악행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 이현은 민초들의 좌절로 얼룩진 1894년 절망의 조선에서 개화를 꿈꾸는 인물이다. 중인계급의 적자로 태어나 양반 못잖은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썩어빠진 조선을 누구보다 증오하는 엘리트 계층을 상징한다. 이복형인 이강과 이강의 어머니인 유월이(서영희 분)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며 깎듯이 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두 이복형제는 동학 농민혁명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극과 극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된다. 전라도 보부상들의 대부, 도점장 송봉길의 외동딸로 조선 최고의 대상을 꿈꾸는 '철의 여인' 송자인 역은 한여리가 맡았다. 자인은 성당에 다니며 신문물, 신식사상을 접하고 개화를 열망하는 신여성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세상의 주인은 장사치들이 될 것이라 믿고 혼인을 마다하고 장사에 매진, 전주



제일의 거상으로 성장한다. 구한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확히 꿰뚫는 인물인 자인은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녹두장군 전봉준 역은 최무성이 맡아, 특유의 선 굵고 묵직한 연기를 보여준다. 그밖에 박혁권, 황영희, 최원영, 안길강, 조희봉, 정규수, 김하균, 김상호, 박지일 등 베테랑 연기자들이 총출동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그려낸다.

4월 17일(수)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경수 감독은 "2019

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분노, 좌절,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선대의 젊은이들이 겪은 고군분투와 좌절, 도약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깊은 울림과 희망, 격려를 던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패한 세상을 응징하는 통쾌한 스토리로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열혈사제>의 인기를 이어갈 <녹두꽃>은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송된다.

## '먹방', '쿡방'의 시대는 갔다! 식재료 중심 신개념 미식주의! 2부작 <격조식당> 5월 10일(금), 12일(일) 방송



2부작 파일럿 <격조식당>(연출: 김재원, 황성준)이 5월 10일(금), 12일(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격조식당>은 전국 각지 명인들이 길러낸 최상의 식재료들로 최고의 한 상을 차리는 고품격 푸드 버라이어티다.

신동엽, 소유진, 김준현, 이미 한국의 쿡방, 먹방을 평정한 MC 3인에 연예계의 소문난 미식이 군단인 김이나, 박재

홍, 지상렬, 김호영, 하성운(워너원), 최유정(아이오아이), 홍신애가 합세하여 주말 밤 '식욕충전' 프로그램을 이끈다.

### 레시피의 시대는 갔다. 이제 식재료의 시대!

세계적인 미식의 나라인 일본은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에도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표기한다. 밥의 재료

인 쌀의 품종과 김의 원산지는 물론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도 소비자에게 알린다. 식품의 겉 포장지에 이런 정보를 넣는다는 것은 소비자를 유혹하는 강력한 마케팅의 방식이다. "이런 재료로 만들었으니 어찌 맛있지 않겠습니까?"로 어필하는 것이다.

미식의 수준이 부쩍 오르고 있는 한국도 곧 이런 날이 온다. 아니, 이미 와 있다. 맛집 소개하는 '먹방'도 아니고 레시피 전파하는 '쿡방'도 아닌, 식재료 우선의 신개념 미식주의 방송, '식방'이 시작된다.

### '접근 가능한 고급스러움'... 새로운 미식의 세계

전통방식으로 끓인 여물로 키운 화식우(火食牛)가 더 유행이 살아있고, '주낙'으로 낚는 해남의 낙지는 그 쫄깃함으로 급이 다른 낙지볶음을 가능케 하며, 방목으로 키우는 제주 흑돼지의 등심은 비계가 두껍고 감칠맛이 뛰어나 최고의 돈가스를 만들어낸다. 이 최상의 재료로 '나만의 한 상'을 만들 수 있다면...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고, 직방에서 가장 싼 집을 찾을지언정 '내가 먹는 한 끼는 제대로'를 외치는, 가성비보다 가심비(價心比)를 추구하는 세대. <격조식당>은 그들을 '접근 가능한 고급스러움'의 미식 세계로 인도한다.

## 베트남에서도 터졌다! 베트남판 <런닝맨-Chay Di cho chi> 3회 만에 유튜브 550만 뷰 돌파\_대박 조짐

<런닝맨>이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대박 조짐이 보인다.

베트남판 <런닝맨 - Chay Di cho chi(짜이띠찌찌)>는 지난 6일(토)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3회 만에 시청률 4.8%를 기록했다. 프라임 시간대 2위를 기록하는 높은 시청률이다. 특히, 1회는 유튜브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 수 200만 뷰를 돌파하며 베트남 유튜브 인기 동영상 TOP 2에 올랐다. 현재 조회 수는 22일(월) 기준 550만 뷰를 넘어 베트남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중국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중국판 <런닝맨>보다도 반응이나 속도감에서 월등하다. 현지 언론도 “막강한 유튜브 조회 수로 상대할 적수가 없다”고 평하며 연일 기사화하고 있다.

<런닝맨>이 베트남에서도 통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판 <런닝맨>과 같다. 예쁘고 맛있는 모습만 보여준 톱스타들이 미션이나 게임을 하면서 망가지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이 신선함과 재미를 느낀 것이다.



현지에서는 “스타들의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 “여배우들끼리 이름표를 뜯으며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 신선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베트남 예능에선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 “컬러풀한 자막과 편집이 획기적”이라는 반응이다.

글로벌제작사업팀 김용재 팀장은 “이번 베트남판 <런닝맨>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고두보를 마련했다. 중국판 <런닝맨>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베트남 전역을 흔들고 있다.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에서도 방송의 큰 역사를 이룰 것 같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최소형 PD는 “한국-베트남 첫 공동제작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 남은 촬영도 양국 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해 인기에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베트남판 <런닝맨 - Chay Di cho chi(짜이띠찌찌)>는 현지 지상파 채널 HTV7를 통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된다.

## 특집 <봄봄파워> 봄나들이 in 제주 제주도민의 열광적인 환영과 참여로 첫 지역 특집 성료



4월 9일(화), 파워FM <봄봄파워>가 제주방송(JIBS)에서 ‘특집 봄나들이 in 제주’를 방송했다. <봄봄파워>는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순위 5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방은 강원과 제주에만 방송되고 있다. 이번 특집은 하루 1만 건 이상 들어오는 <봄봄파워>의 문자 중 상당수가 제주도민과 제주도 관광객이 보낸 문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주방송과의 교류 확대 및 제주 청취자들과 보다 가까이 호흡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게스트 없이 DJ 혼자 2시간을 채우는 <봄봄파워>의 특성을 살려 특집방송은 대규모 공개 방송이 아닌 제주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SBS 출신인 이남기 제주방송 사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준비과정은 순탄했다. 라디오기술팀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꼼꼼한 사전답사와 장비 세팅도 이루어졌다.

방송 당일 제작진은 봄 DJ의 비행기 탑승을 시작으로 제주도 행적을 퀴즈 형식으로 <봄봄파워> 인스타그램에 6차례에 걸쳐 올려 방송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오후 4시 방송이 시작되자 청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주도에 입성한 봄디에게 뜨거운 환영 인사를 건넸다. 2부에는 특별히 초청한 제주도 청취자 10명과 함께 ‘제주도에서 봄디가 먹고 싶은 음식은?’이라는 주제로 텔레파시 퀴즈를 진행했다. 3부에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국내 유일의 모의 청취율 조사 코너인 ‘이만호 팀장’을 진행했다. <봄봄파워>의 하이라이트 4부 ‘애호박나이트’에서는 10명의 청취자가 봄과 함께 사이의 ‘낙원’을 부르고 안무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청취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방송에는 총 13,820여 건의 문자 참여가 이루어졌다.

오지영 PD는 “제주도 청취자들의 뜨거운 애정을 확인했다. 이번 특집이 <봄봄파워>가 전국방송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그알> ‘잔혹한 충성’ 심사위원 특별상 등 제52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 6개 부문 수상 쾌거



4월 13일(토)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된 제52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충성’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영재발굴단> ‘충북 단양의 피아노 소년 배용준’, <정글의 법칙 in 남극>, <SBS 8뉴스> ‘특별사

면과 평창올림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가 플래티늄상, <리턴>이 금상, <SBS스페셜> ‘움직여라! 발가락’이 은상은 수상하는 등 SBS의 여섯 개 프로그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Reality-Based Programs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충성’(연출: 장경주, 이근별)은 한국 국방부 내 기밀문건 8,000페이지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30년 기밀해제 문건을 언론사 최초로 수집해, 518광주민중화운동 당시, 미 정부가 처음부터 5.18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다.

탐사 저널리즘 부문 플래티늄상을 수상한 <SBS 8뉴스> ‘특별사면과 평창올림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전병남, 한승희, 이한석, 정경윤, 강창완, 이세영, 민경호, 이현영)와 TV시리즈 어린이/가족 부문 플래티늄상을 수상한 <영재발굴단> ‘충북 단양의 피아노 소년 배용준’(연출: 한재신, 박연)은 4월 9일(화) 2019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에서 각기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에미상, 토니상과 더불어 북미 3대 TV 전문 페스티벌의 하나로 꼽히는 휴스턴 페스티벌에서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엔터테인먼트 부문 플래티늄상을 수상한 <정글의 법칙 in 남극>(연출: 김진호)은 태양열 에너지만을 이용해 4박 5일 남극 생존에 도전,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4K UHD HDR(Ultra-HD High Dynamic Range, 초고화질 영상 기술)로 촬영하여 남극의 경이로운 대자연의 실체에 가장 가깝게 전달했다.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금상을 수상한 <리턴>(연출: 주동민, 극본: 최경미)은 도로 위 의문의 시신과 살인용의자로 떠오른 4명의 상류층을 쫓는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와 촉법소년 출신의 독고영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스릴러로 방송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TV시리즈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수상한 <SBS 스페셜> ‘움직여라! 발가락’(연출: 최삼호)은 불의의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중학교 2학년 김동성 군과 그 가족의 재활 치료 과정을 4개월에 걸쳐 관찰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운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 끝까지판다팀 '정준영 폰'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정준영 폰... 연예인-공권력 유착 비리'(김지성, 김종원, 최고운, 강청완, 조창현)가 4월 24일(수)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기자 연합회가 주는 제12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정준영 폰 연예인-공권력 유착 비리'는 입수한 카톡방 대화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일이 관련자 취재를 통해 물의를 빚은 성범죄와 경찰의 부실수사, 유착 의혹 등을 연속 보도하며 사건의 실체를 의미 있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병희 탐사보도팀장 김지성 최고운 김종원 강청완

### <TV 동물농장> 2019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TV 동물농장>(연출: 김규형)이 4월 17일(수)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TV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받았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매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기관인 Brand Keys, MBLM과 함께 경제·경영·인물·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브랜드 어워드다. <TV 동물농장>은 대중친화력, 브랜드 평판, 사회 영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



이기현

### SBS M&C 1분기 경영공유회 실시, 목표 달성 의지 다져

SBS M&C는 지난 4월 16일(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분기 경영공유회를 실시했다. 'M&C 경영공유회'는 분기마다 각종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직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 및 정보, 우수 B.P 사례를 함께 나누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1분기 경영공유회는 경영현황 및 B.P 사례 발표, 대표이사 경영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경영기획팀장은 1분기 방송광고 시장을 브리핑하면서, 지상파 및 MPP, 종편 시장의 하락세를 설명했으며,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팀 간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LED 마스크 '셀리턴', 공기청정기 '코웨이', 아웃도어 웨어 'K2'의 광고 판매 사례를 다뤘다. 우수 사례 발표자로 선정된 김도훈 대리, 손혁준 차장, 이석희 부장은 입을 모아 SBS와 M&C, M&C 내 부서 간 협업과 광고주에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가치 제안'을 강조했다. 정해선 대표는 "SBS 미디어그룹의 비즈니스 허브라는 회사 비전에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자"면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실행력'을 강조했다. 임직원들도 악화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광고주 맞춤형 영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SBS 미디어그룹의 비즈니스 허브라는 비전에 공감대를 높였다. 진행을 맡은 담당자는 "분기마다 실시하는 경영공유회를 징검다리 삼아, 회사 비전을 공유하고 임직원 간 공감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모비딕-서울예대 업무협약식



4월 11일(목) SBS 모비딕(모바일제작사업팀)과 서울예대 산학협력단은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예대는 SBS의 제작 현장에 실습생을 파견하는 등 중, 장기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어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SBS는 서울예대로부터 숙련된 디지털 인력을 제공받게 된다. 또 양사는 다양한 창작 콘텐츠의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하루의 끝과 시작" <준박의 뮤직하이>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후 11:00~01:00

사우 여러분들은 밤 열한 시,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를 재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겠지요. 저도 그렇고요...ㅠ <준박의 뮤직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세상, 자정을 앞둔 시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를 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아이를 재우고 육아 퇴근하는 초보 엄마들, 작업과 싸름하는 프리랜서들, 그리고 야근에 지쳐있는 직장인들까지. <뮤직하이>에는 한낮에 느껴지는 활기참은 없지만,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가끔 프로그램에 "오늘은 <뮤직하이>가 시작하기 전에 퇴근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함께 하게 되네요..."라는 문자들이 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DJ 준박은 "뮤직하이" 안

들어도 좋으니 제발 일찍 퇴근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 방송 어떻게 하라고...하지만 걱정은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안타깝게도 자정에 깨어있어야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뮤직하이>의 역할은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 <뮤직하이>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너무 설명을 안드렸네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좋은 음악이 많이 나갑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힙한 음악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익히 알고 있는 음악까지, 혹시나 사우 여러분들 중 센치한 마음에 늦은 밤 드라이브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다면 <뮤직하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그렇다고 음악만 나가느냐, 또 그렇진 않죠. 화요일엔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수요일엔 나름 연예 상담도 해드립니



다. 일요일에는 영화 소개도 해드리고요. 차린 거 없어 보이지만 나름 알찬 프로그램 <준박의 뮤직하이>, 사우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 끝인사로 이 글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 밤' 되세요~"

- 이세훈 PD(라디오2CP 소속)